

로그인 회원가입

BTN바로가기 BTN온에어 편성표

BTN 뉴스

오전 7:00, 10:00 / 저녁 7:00, 10:00

검색 할 기사를 입력하세요.

종단 포교 문화 사회 신행 전체뉴스 실시간뉴스 포토뉴스 행복한불서 이슈&피플 세계불교 전국 날짜별뉴스

최종편집 : 2021.10.15 금 10:45 (불기 2565년)

ARS 060-800-7000 ♥ BTN 정기후원하기

HOME 실시간뉴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구례 사성암과 화엄사 참배

윤호섭 기자

승인 2021.10.03 12:01

댓글 0



원호를 시작으로 도선, 진각, 의상스님까지 한국불교의 획을 그은 4명의 고승이 수도해 이름 지어진 구례 사성암.

깎아지른 절벽에서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운무와 섬진강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에도 지난 2일,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의 발걸음이 닿았습니다.

지리적 한계로 숙영지는 산 아래 주차장에 마련됐지만 순례단원들은 각자 사성암에 올라 불·법·승 삼보를 향한 신심을 다졌습니다.

권두경 / 동국대 경주병원 수간호사

(사성암 처음 와봤는데 경치 너무 좋고 주위 풍경도 너무 좋아서 지금 감탄 많이 했고요. 앞으로 도 조금 순례길이 원만히 다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날 새벽, 사성암 숙영지에선 사부대중이 함께 오분향례와 칠정례로 아침예불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체뉴스



2021년 10월 15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4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3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2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1일 전체뉴스

인기뉴스



관음종 부산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당해



진관사 찾은 행수 "내면 진심 깨달아"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해동용궁사, 조계종 화엄사 말사로 등록

수덕사승가대학장 역임 밀양 무이정사 주지 무이거 부스님 입적



"종교화합 저해 가톨릭 성지순례길 중단해야"



운허스님과 당대 고승 자료 한 자리예

작은 텐트 안에서 밤새 굳은 몸을 가볍게 풀고, 다시 길 위에 오릅니다.

질게 깔린 안개를 헤치고, 가을 문턱에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녘을 지나자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십찰 가운데 하나인 화엄사에 다다릅니다.

번뇌와 해탈이 둘이 아님을 알려주는 불이문을 지나 대웅전 앞에 선 순례단.

조계종 명예원로이자 화엄사 조실인 명선 대종사가 순례단을 반깁니다.

명선 대종사 / 구례 화엄사 조실

(많은 국민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할 희망을 주는 선근공덕이 되길 불보살님께 기도드립니다.)

일주문부터 사찰을 소개하며 순례단을 안내한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순례단이 지리산을 무탈하게 넘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덕문스님 / 구례 화엄사 주지

(삼보사찰 순례단 전원이 회향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걸을 수 있는 장엄함을 잃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치권에서 순례단을 찾아온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과 주호영 명예회장은 천리순례가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원욱 / 국회 정각회장

(이번 순례길 행사를 통해서 화쟁사상이 온 국민에게 널리 퍼져서 국민통합이 이뤄져야지 코로나 19 극복, 국난극복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앞으로 이번 순례의 가장 난코스인 해발 1000m의 성삼재와 시암재를 넘어 해인사를 향해 걸음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BTN 뉴스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호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윗

좋아요 0개

인기가사

(나랏말싸미 7) 한글날과 신미대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법보종찰 해인사 도착

(삼보사찰 천리순례 7) 종교지도자들도 격려

문화재관람료 "통행세"..정청래에 사과 요구

(삼보사찰 천리순례 9) 빗줄기 뚫고 구법 행선



(나랏말싸미 7) 한글날과 신미대사

기사 댓글 0개

전체 보기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TN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사업안내(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투고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불교텔레비전(주) | 제 호 : BTN불교티비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84
등록일 : 2007년 12월 27일 | 발행인 : 구본일 | 편집인 : 남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성 | 전화번호 : 02-3270-3385
BTN불교TV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 02-3270-3385)
Copyright © 2021 불교텔레비전(주)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CS**